

제 37 호

연중제 19 주일
(강림 후 9)

1973. 8. 12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강론]



성모 승천

범석규 신부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요한 사도의 집에서 사셨읍니다. 옛 전설에 의하면 성모님께서서는 매일 요한 사도가 바치는 미사에 참례하시고 영성체를 하심으로 예수님께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원죄(인류의죄)가 없으시므로 원죄의 벌인 죽음을 맞보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지 23년째되는 어느 날이었읍니다. 그때 각 지방에 나가서 전교하던 11사도(도마제의)는 이상하게도 성모님을 뵈우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 약속이나 한것처럼 성모님께 모여 왔읍니다. 성모님께서서는 11사도들의 애정깊은 간호중에 운명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성모님의 입술에는 참 평화와 진실한 즐거움이 깃들어 넘쳐 흐르고 있었읍니다. 사도들은 성모님의 성시(聖屍)를 정성드려 장례를 마쳤읍니다. 그런데 멀리 동방으로 전교를 떠났던 도마사도가 3일째 되는 날에야 돌아와 성모님을 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모님 성시라도 보겠다고 무덤의 돌문을 굴러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이 웅대입니까? 거기에는 성모님의 시체를 쌓았던 표만 있고 시체는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풍겨나왔읍니다. 거기 있던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성모님은 승천 하셨습니다.」하고 외쳤읍니다.

이는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성모님을 땅에서 썩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이 승천을 믿어왔고, 1956년에는 신덕도리로 선포하신 것입니니다.

우리가 목상할 것은 이러한 승천의 영광을 받으신 기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성모님께서서는 원죄없이 탄생하는 특은을 받은 지위때문이며 이 지위에 합당한 모든 덕을 겸비한 때문입니니다. 우리도 영세받으므로써 받은 은총지위와 이 지위를 잘 보존하는 신자다운 덕행을 닦으므로써 성모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받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하느님, 당신의 언약을 돌아보시고 당신의 가난한 이들 생명을 내내 잊지 마소서. 하느님, 일어나 시어, 흠으심을 밝히시고 당신을 찾는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옵소서.

□**제1독서** (열왕 전 19:4-8, 경향잡지8월호P. 46)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까지 올라갔다.

□**송계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 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 하라. ◎

□**제2독서** (에페소 4:30-5:2, 성서 P. 443)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복음** (요한 6:41-52, 성서, P. 218)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신자들의 기도**
1. 젊은이들의 옹바른 스승이신 예수여, 어제부터 김제에 모여 지역대회를 하고 있는 교구 중·고등학교생들이 성신의 감도하심을 제바로 읽어 따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다음 주에 있을 교구 교리교사 연수회와 사목지침 마련을 위한 대협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진리의 성신이며, 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어, 성실한 마음이집으로 참여하여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3.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여, 당신을 증거한 순교자 이누갈다의 묘소가 더럽혀지고 파손되어 가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모아져 조그마한 정성이 꽃피우게 인도하소서. ◎

+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천주의 모친 동정 마리아는 완성된 당신 교회의 첫 모상으로써,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당신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주여 비오니, 실망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내가 주려는 빵은 내 살이니, 이로써 세상 이 생명을 얻으리라.

✽ 이 주간의 성경 ✽

- 13(월) 독서 (디모테오 전서 5:1-2, 성서 P.480)
복음 (마 태 오 17:21-26, 성서 P.41)
- 14(화) 독서 (디모테오 전서 5:3-7, 성서 P.480)
복음 (마 태 오 18:1-5, 10, 12-12, 성서 P.42)
- ※저녁 독서 (고린토 전서 15:54-57, 성서 P.401)
복음 (루 가 11:27-28, 성서 P.159)
- 15(수) ◎ **성모 승천 축일**
독서 (고린토 전서 15:20-26, 성서 P.399)
복음 (루 가 1:39-56, 성서 P.123)
- 16(목) 독서 (디모테오 전서 5:8, 성서 P.480)
복음 (마 태 오 18:21-19:1, 성서 P.43)
- 17(금) 독서 (디모테오 전서 6:3-10, 성서 P.481)
복음 (마 태 오 19:3-12, 성서 P.44)
- 18(토) 독서 (디모테오 전서 6:17-19, 성서 P.482)
복음 (마 태 오 19:13-15, 성서 P.45)

□대화의 광장□

□화해의 성년□



“마 음 과 · 마 음 의 가 교”

이 태 주(알로이시오)

화려한 장식, 적당한 조명 아래 은은한 음악이 흐른다. 인간의 기쁨, 슬픔을 호소하는 각종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림자의 움직임도 없이 무언가에 골몰하는 사람들, 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감상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각 테이블이 완전 독립을 이루고 있는 듯한 세계, 미소를 짓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두 눈동자를 서로 맞대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사람, 얼굴을 찡그리며 심각하게 혹은 머리를 숙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 모두가 제각기 개성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간혹 드문 드문 홀로 반성이라도 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 이도 있다. 누구와의 대화를 위한 사색의 기다림인지...

어느 대학 교수님 말씀이 「인간 서로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인 즉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이해 한다는 것으로 신비라고 할 수 있겠다.」고

이해하는 것이란 남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말의 뜻과 내용 뿐만이 아니라 그 말 뒤에 포함된 느낌, 감정, 태도까지 알아채고 같이 느끼는 것, 내 스스로가 타인의 기분 상태가 되어 그 마음 속 깊이 들어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일치되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각각 고유한 멜로디를 지니고 있다면 메아리가 되어 그 사람 마음의 음악 소리를 되울려 보는 것이다.

다시 독립된 세계가 모여있는 방안을 들여다 본다. 저~기 푹푹한 구석 자리에서 열심히 대화를 주고 받는 두 사람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심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요한과 얘기 도중 간간히 몇마디씩 대답을 해주며 진지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친구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베드로 요한의 처지와 입장이 되어 보는 관점의 각도까지 같이하여, 같이 느끼려고 노력하는 베드로를 보는 요한의 눈동자는 감격에 찬 눈동자로 이는 지극히 메마른 현대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신비이다.

상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밝을 수도 어두울 수도 있다. 그러나 방법을 초월해서 지나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더 필요한 것이고,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이지적 분석을 초월한 가슴 전체의 감정으로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미를 발휘하여서 선입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판단없이, 서로 주고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공동체로서 형제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계급이나 신분을 떠나 인간을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넣어 분석하지 않고, 좀더 광범위하게 너와 내가 지닌 마음의 음(音)을 공명시키고, 이에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을 때, 이는 아름다운 합주를 이룬, 인간만이 지니는, 찬미의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금년은 화해의 성년. 우리는 마음과 마음에 다과를 놓아 대화를 나누자.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창조하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지극히 드라이한 삭막함에서 벗어나 화해의 기쁨이 이루어 지도록 기구하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대건 신학대학생〉

□독서회 안내□

성 바오로서원 독서회

(문의는 전화 ㉠ 7398)

○ 특 전 ○

- 1. 본 출판부 간행물은 우송시 15%할인, 단 송료는 본사 부담합니다.
성바오로 서원에서 직접 구입 할때에는 20%할인 해드립니다.
- 2. 성바오로 서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타 출판사의 서적에 대해서도 우대 합니다.
- 3. 출판 될 서적을 선불 주문시에는 25%할인 해드립니다.
- 4. 모든 회원에게 1년에 1회 본 출판부 간행물을 1권씩 증정 사례 합니다.
- 5. 새 회원을 3명 추천해 주시는 회원에게는 유니버설 문고 1권을 증정합니다.

❀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2212 ㉠7071)
김 병 구(빈첸시오)

각종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병방 시설 완비 미미 제과소

전 화 ㉠ 6 5 8 9
(미미사장 ㉠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옆)
김 민 주 (가타리나)

□ 양 지 쪽 □



돈 오십 원

50원이라면 별로 큰돈도 아니지만 그런대로 쓸모가 많은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빵 따이가 다섯 가마니요 만화를 무려 30권이나 빌려 볼 수 있는 거액(?)이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빙고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한잔 마실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출출한 판에는 사발떡기 대포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가락국수 한 그릇이면 시장한 배속을 달랠 수도 있다.

왜 이리도 구질구질하게 <50원 타령>을 늘어 놓는가하면, 단돈 50원에 느낀 고마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야 실은 단돈 50원의 역할이 컸던게 아니라, 그 50원을 사용한 분의 마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그분에게 감사드리며 그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지난 7월말에 왜관 피정의 집에서 평신도 전국 총회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 교구에서는 달랑 혼자 참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대구분지(盆地)의 찌는듯한 3일 동안의 더위에 녹아났던지, 돌아오는 날 그만 뺏겨고리(샤쓰)를 벗어 놓고 와버렸다. 그렇다고 맨몸으로 온 것은 아니다. 여벌로 가지고 간 티샤쓰를 입고 왔으니깐. 동대구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서야 옷을 벗어놓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워낙 더워서 그냥 전주로 왔다.

밤늦게 시의전화를 해서 옷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샤쓰가 50원어치 우표를 물고 전주에 왔다.

예로부터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을 한번 움켜 쥐기만 하면 또 달라지는 것 같다.

출퇴근 시간에 물결처럼 밀려서 오가는 발걸음이나, 골 시집가야할 말만한 처녀가 숫세 눈을 감은채로 졸린 음성으로 내뱉는 "광화문 가요"라는 소리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백사장에 널려서 소위 바캉스를 즐기는 벌거벗은 무리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겨우 1시 버스를 움켜쥐고 물려 다니는 고속버스 정류장의 인파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신진국의 부자들도 잘 안찬다는 10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어린 제비족들과 고고 춤을 즐기다가 훌랑 털어버린 유한매담의 기사를 읽으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돈벌기에 앞뒤조차 잘 안보여 허둥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써야 좋을 지를 몰라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그 돈은 분명히 당신의 것이겠지만,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원한 이야기가 좀 들려 왔으면 싶다. (갑)

오십이 (4) 김병오



더위에 건강 하십시오
성 바오로 서원

미 사 시 간 안내

	중 양	노 송 등	덕 진	복 자	서 화 동	전 동
주	오전 6, 10시	6, 10시	10시	10시	10시	5시반, 9, 10시
일	오후 7시30분	8시	8시	8시	8시	8시
평	오전 월, 수(6시) 금(10시-어머니)	금(10시-어머니)	월, 수, 금(6시)		월, 목(6시)	월, 화, 목, 금(5시 반)
일	오후 화~목(8시) 토(5시)	화~목(8시) 토(6시-아동)	화, 목, 토(8시)	8시	화, 수, 금, 토(8시)	수, 토(8시)

전주전신전화국 앞

제과 @5011 찾집 @5013

개업

프 랑 스 제 과
* 임 금 님 찾 집 *

「프랑스제과」에도 대형 에어콘 설치!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 원 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왕 자 표 연 탄

전화: @5287 @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
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 (분도)

전주 시내 6개 분당 소식

1. 성모 승천 대축일 (8월15일)미사는 주일날과 같음
2. 교구 중 고등학생 제5차 지역대회 (8. 11-13, 김제성당)
3. J. O. C. 교구 지도자 훈련회 (8. 18-19, 전동성당, 문의처 @3498)
「공정안에 교회들 세우자」라는 주제로 모이는 훈련회에 남녀 청년 신자와 직장인의 많은 참여 바람 (회비 500원)
4. 교구 교리교사 연수회 (8. 19-22, 가톨릭 센터)
5. 교구 사목 지침 마련을 위한 대 협의회 (8. 23-25, 가톨릭 센터)
6. 성년 특별 강론 (8. 23(목) 오후 8:30-10시, 중앙성당)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신학박사 김남수(안젤로)신부님의 특별 강론에 많이 참여 하시기 바람
7. 성 프란치스코 전주 방지거 형제회 허원 및 착복식 (10월 7일)
희망자는 중앙성당에서 있는 수련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람 (8월17일과 31일 오후 2시)
8. 이 수현 신부 군중 소령으로 임관 (지난 주 기사 매위를 소령으로 바로잡음.)

(중양)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1.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강당에서
2. 성모회 정기총회 8.15 성모승천 미사후
3. 학생회 제1차 하기 연수회
일시~8. 18~20 (2박 3일)
장소~중앙성당
본당 중·고등학생 신자 및 예비신자 기타 희망자의 많은 참석을 바람.
4. 대청소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당 내외 대청소를 실시하오니 교형 자매님들의 적극적인 봉사를 바랍니다.
일 시~8. 14(화) 오후 2시부터
지참품~남교우는 쌀, 마당비
여교우는 걸레, 방비

X X X

감사드립니다.

화해의 성년을 맞이하여 순례성당으로 지정된 주교좌성당의 참신한 환경 미화를 위하여 사도회 부회장 이복석님께서 세멘트 50포대를 회시켜 주심으로써 성당앞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되었음을 중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정원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위하여도 많은교우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30,01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10시미사후 경품놀이 있음>
2. 부녀회 월례회 <다음 주일 있음>
3. 축하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첫 영성체 예식 8. 15일 오전 10시미사에 있습니다.
4. 매주 토요일 어린이 미사 6시에 부모님께서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축 성미 지난주 1가마 2되. 누계 3가마 8말 8되
□지난 주일 봉헌금 11,17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2. 푸른 양지회 단합대회
장소: 계룡산 경비: 1,500원
일시: 8월 15일, 18일 <3박 4일>
단합대회에 같이 참석코저 하시는 분은 8월 12일 까지 푸른양지회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지난 주일 봉헌금 4,775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오성호

1. 사도회 임시총회 (승천 대축일 10시 미사후)
2. 견진히실 분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 바람
3. 교무금 완납하여 본당 실림 도움시다.
9월말이 연도말인데 교무금 납부 성적은 겨우 63%입니다.
4. 주일 봉헌금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지난 주일 성미(3말 5되) 누계 178말 2되
지난 주일 봉헌금 9,91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상관 사도회 (오늘 9시 미사후, 상관에서)
2. 예비자 교리 다시 시작 (다음 주일 부터)
3. 반장회의 (승천 대축일 10시 미사후)
안건 ① 성년에 대한 문제 ② 기타
4. 견진 히실 분은 계시판을 보시고 신청 바람
□지난 주일 봉헌금 9,796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자모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사제관)
2. 애령회 특별헌금 (애령회를 도움시다)
3. 신용조합 월례회 (8월 14일 밤 8시반, 강당)
4. 성모 승천 대축일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① 고백성사는 미사 전후에
② 어머니 성가 연습은 13. 14 양일간
5. 레지오마리에 대열에 참여합니다.
□새 전동성당을 이룩하는데 협조하신분
무명재(1만원), 김만주(6천원), 유수남, 김한숙(각2천원), 김광수, 채재순, 김용엽, 양희석, 장옥남, 전누시아, 김모순, 석만수, 조광복(각 1천원) 김에노파, 문복주, 김기화, 김복수, 남북선, 차수연(각 5백원), 이우정(3백원)
<타 분당> 이상범(1만원), 허혜례사(5천원)
누계 728,300원, 자갈200트럭, 탁주 3삼
※ 협조해주신 범위내에서 성당 내외의 페인트칠과 유리공사까지 하기로 결의함
-사도회-

□지난 주일 봉헌금 25,998원, 감사합니다.